

12 뉴스-축제 이모저모



설렘과 웃음
으로 활기
가득한 축제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싸이 온다는 소식에 아침 6시 반부터 기다렸어요. 확실히 오랜만에 대면으로 하는 축제라 행복하고 설레요”

축제 2일 차인 지난 25일, 유명가수 ‘싸이’의 공연을 앞둔 서울캠퍼스(서울캠) 노천극장엔 오전부터 치열한 자리 경쟁이 벌어졌다. 노천극장부터 이어진 공연 입장 대기 줄은 중앙도서관과 평화의 전당에 이어 후문 입구까지 늘어졌다. 공연까지 남은 긴 시간에 학생들은 줄 중간에서 돛자리를 펴고 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수업이 한창인 시간, 청운관 앞에도 기업의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학생들이 운영하는 부스를 경험하는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알코올 주류 판매가 금지돼, 낱알콜 맥주를 들고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이번이 첫 대면 축제라는 박준서(회계세무학 2020) 씨는 “교수님이 축제를 위해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는 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캠퍼스가 활기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다”고 웃었다.

이번 춘계 대동제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겼던 캠퍼스도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다시금 일상으로의 회귀하는 모양새였다. 이재백 서울캠 총학생회장(관광학 2020)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적북적 하고 학생들이 여러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원했던 기준에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1 학생들이 싸이 공연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 행렬은 중앙도서관부터 평화의 전당을 거쳐 후문까지 이어졌다. 일부는 돛자리를 펴고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며 입장을 기다렸다.

2 축제를 맞아 설치된 대형 쿠옹이와 사진을 찍기 위해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구성원의 마음을 빼앗은 대형 쿠옹이는 학생들의 개인 SNS에 도배됐다.

3 경영대학 학생회 LEAD가 구슬 아이스크림 팝업 스토어 구글스를 개최했다. 더위에 힘들어 하는 학생들은 아이스크림을 사먹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한 박 웃음을 지었다. 팝업 스토어 주변은 시원한 공기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사진=박상희 기자)



경희대학교 Khreative U+
GREP Graduate Research & Education Portal

The Brain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정보 및
연구검증 시스템 오픈



https://brain.khu.ac.kr

- 연구논문, 학술대회 참가 정보, 연구활동 기록 및 개인 프로파일 및 취/창업 홍보를 위한 종합시스템
-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정보 및 연구검증 시스템



01

지도교수 선정 시
The Brain 가입 확인 증빙
제출 의무사항 실시



02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참여
및 희망 대학원생은
의무 가입



03

연구논문의 경우,
반드시 검증 후 업로드
실시



04

Manual 제공 이후
지속적인 개선과 업그레이드
예정

The Brain 경희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문의 : Tel. 02-961-9105~6 E-mail. innogradu@khu.ac.kr